

에게 / 한테

~에게 — 사람이나 동물에게

생명이 있는 대상에게만 쓰는 예입니다. 의미는 같으며 한테는 구어, 에게는 문어에 씁니다.

■ 결합 방법

문체	형태	예
구어	한테	친구한테 왔어요
문어, 격식	에게	학생에게 알렸습니다
높임	께	선생님께 드렸어요
출발점(대상 아님)	한테서 / 에게서	친구한테서 들었어요
동물	사람과 같음	고양이한테 밥을 줬어요
장소에는	예를 대신 씀	회사에 보냈어요 — 회사한테가 아님

■ 언제 쓰나요

한국어는 ‘~에/~에게’를 대상이 생물인지 아닌지에 따라 나눕니다. 장소, 회사, 사물에는 예를 쓰고, 사람과 동물에는 에게나 한테를 씁니다. 서울로 소포를 보내면 서울에, 동생에게 보내면 동생한테.

두 형태는 의미상 바뀌 쓸 수 있습니다. 한테는 대화에서 주로 듣는 말이고, 에게는 책, 안내문, 격식 있는 글에서 주로 보는 말입니다. 어느 쪽이 더 공손한 것은 아닙니다. 받는 사람을 높일 때는 높임 형태인 께를 쓰며, 드리다, 여쭙보다 같은 동사와 함께 씁니다.

주고 보내는 행위 외에도, 감정이나 영향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냅니다: 저한테 중요해요 (나에게 중요하다), 동생한테 잘해 주세요 (동생에게 잘해 주라).

■ 예문

- 1 친구에게 편지를 썼어요.
- 2 동생한테 말했어요.
- 3 선생님께 여쭙봤어요.
- 4 고양이한테 밥을 줬어요.
- 5 누구한테 받았어요?
- 6 회사에 이메일을 보냈어요.

■ 비교

에
이 구분은 문체의 차이가 아니라 문법의 차이입니다. 생물인 대상에는 에게나 한테를, 그 밖의 것에는 예를 씁니다. 회사는 사람이 일하는 곳이지만 장소이므로 예를 씁니다.
친구한테 보냈어요. / 회사에 보냈어요.

께
높임 형태입니다. 선생님, 부모님, 상사, 윗사람에게 쓰며, 주다 대신 드리다, 물어보다 대신 여쭙보다처럼 겸양 동사와 함께 씁니다.
선생님께 드렸어요. / 친구한테 왔어요.

한테서 / 에게서
서를 붙이면 방향이 반대가 되어, 그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출발점이 됩니다. 편한 대화에서는 한테만으로 두 가지를 모두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, 문맥으로 구분합니다.
친구한테 말했어요. (친구에게 말함) / 친구한테서 들었어요. (친구로부터 들음)

■ 주의

- ✗ 회사한테 서류를 보냈어요.
○ 회사에 서류를 보냈어요.
단체나 기관은 사람이 아니라 장소로 취급합니다. 회사, 학교, 사무실에는 예를 씁니다.
- ✗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렸어요.
○ 선생님께 질문을 드렸어요.
드리다 같은 높임 동사를 쓸 때는 조사도 맞춰야 합니다. 드리다, 여쭙보다, 계시다에는 께를 씁니다.
- ✗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어요.
○ 친구한테서 선물을 받았어요.
받다에서 친구는 출발점이므로 한테서가 정확합니다. 짧은 한테도 편한 대화에서는 흔히 쓰지만 글에서는 뜻이 모호해집니다.